

## 1. 출제문제 분석

### 【문 1】 의 1

① 공동소송의 형태(통상공동소송) ② 확정판결의 효력(기판력) ③ 기판력이 발생하는 청구의 범위(기판력의 객관적 범위)

### 【문 1】 의 2

① 토지분할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청구인용된 경우,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판결의 경정신청이 가능한지, ②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

### 【문 2】 의 1

항소심에서의 쌍방 불출석에 의한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

### 【문 2】 의 2

①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

## 2. 총 평

### 【문 1】

판결의 효력인 기판력과 기속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1문의 기판력은 민소법에서 단연 제일 중요한 주제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= 판결주문 = 소송물 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.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이지, 이유 중 판단인 소유권 존재 사실에 대해선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떠올리면 답안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.

2문은 기속력의 완화된 판결의 경정 대상과 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대법원에 특별항고가 가능하다는 최근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논리적 서술을 요하는 주관식 사례문제라기 보다는 객관식용으로 적당한 문제로 본 판례를 접해 본 수험생만 정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허나 기속력과 판결의 경정에 관한 의의와 조문 정도만 기술해도 기본점수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

### 【문 2】

기일해태의 효과의 하나인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(쌍불취하)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1문은 항소심에서는 소취하간주가 아닌 항소취하간주로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놓쳐서는 안 되고 법률상 당연 인정되므로 법원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2문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쌍불에 의한 항소취하간주는 항소심의 재판이 아니어서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(상)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인 규칙 제67조, 68조에 따른 기일지정신청의 방법을 이용해야 함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점 잘 서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.

수험생의 시간은 딱 둘 뿐인 것 같습니다. 시험치기 며칠 전, 합격자 발표 며칠 전. 이제 딱 시험을 마쳤으니 우리의 시간은 합격자 발표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. 시험 10달 전이나, 2달 전이나 2주전이나 하루 전이나 모두 시험 당일과 똑 같다는 마음과 자세로 시간을 보내셨다면 틀림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^^